

코스피 6000 시대... 정은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선언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행사

생산적 금융지원 등 핵심과제 제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한 제도 개선
IPO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 구축

“생산적 금융 전환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지난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에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기념하고, 코스피 6000 포인트를 넘어 우리 자본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 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황성엽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민동욱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등 자본시장 유관 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은 지난 1월 27일 코스피 5000 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파 이후 한 달도 안 된 2월 25일로 6000 포인트를 넘어섰고, 우리 증시의 시가 총액은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9위로 올라섰다”며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상장회사 12개로 시작한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지난 70년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에서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지난 2월 26일 기준 3조7600억원에 달한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 등 제반 정책과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대내외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생산적 금융 지원 ▲자본시장 신뢰 제고 ▲자본시장 디지털 전환 적극 대응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

로별 동향에 부합하는 거래시간 연장, 결제 주기 단축 등을 추진하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영문공시 활성화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주요 시장 간 국경 없는 유동성 경쟁이 확대되고 있고, 더 이상 자국만을 기반으로 한 시장은 생존할 수 없게 된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기업공개(IPO) 활성화,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지속 실시를 통해 벤처

기업의 성장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숫자의 상승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증거”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화를 이끌어 냈고, 코스피는 순자산비율(PBR) 0.8에서 PBR 2.0 시대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PBR 3.0에 못 미치는 만큼 전망도 밝다는 의견이다.

오기형 위원장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1·2차 상법개정 했고, 이후 시장의 반응이 냉소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며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려면 실제 혁신하는 기업,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기업을 함께 고민하는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한국 자본 시장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학계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코스피 6000 시대’를 맞아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새로운 발 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저평가 탈출조건, 지배구조 개선·주주소통”

학계·전문가 모여 발전 방향 논의 “규제 혁신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을”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서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가운데, 한국 증권시장이 개장 70주년을 맞이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넘어 7000, 8000 등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소통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을지로 롯데 호텔에서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

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 자본시장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자본 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시장 체질 개선 신호는 분명하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 상태는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상법 개정과 같은 주주와의 소통 구조 정착이 핵심이

라는 의견이다.

김 센터장은 “최근 우리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국내 증시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상장사들과 주주들이 제대로 소통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세 차례 진행된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그런 터전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과 관련해 주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상장사들은 열심히 투

자하고,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당장 환원하기보다는 더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상장사들이 주주에게 소명하고 설득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직접투자인구는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주식 관련 이해관계에 노출된 투자자들도 많아졌다는 부연이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었고, 규제 혁신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센터장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대주주 중심

구조로 인한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 미흡 인식들이 결국 국내 증시 저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주주 환원이 상당히 낮았던 부분들도 대부분 시장이 소외됐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좀비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코스닥시장은 여전히 상장사 중 약 43%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실기업 퇴출과 기업들의 투명성·기업설명회(IR) 인식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신하은 기자

넥스트레이드 1년, 거래대금 2338조... 프리·애프터 8배 성장

일평균 242만개 계좌 참여
투자자 거래비용 298.5억 절감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개장 1주년을 맞았다.

4일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1년간 누적 거래량 473억주, 거래대금 2338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주식시장(NXT+KRX) 거래량의 11.8%, 거래대금의 2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주식시장 성장에 힘입어 성공적인 시장으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프리·애프터마켓의 성장이다. 정규거래시간 외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 프리·애프터마켓 일평균 거래대금은 출범 초기 약 1조1000

억원에서 최근 8조9000억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프리·애프터마켓 거래는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대금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NXT+KRX) 대비로도 12.9% 수준까지 확대됐다.

시장 참여 저변도 넓어졌다. 올해 2월 기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일평균 242만개 계좌가 참여했으며, 이 중 프리마켓 참여 계좌는 84만개(35%), 애프터마켓 참여 계좌는 66만개(28%)로 집계됐다. 출퇴근 시간대 투자 수요를 흡수하며 시간 외 거래가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다.

거래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넥스트레이드는 메이커·테이커 차등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고 한국거래소 대비 평균 30%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개장 이후 1년간 투자자 거래비

용 절감 효과는 총 298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초기 수수료 면제 구간과 이후 수수료 차이에 따른 절감분이 반영된 수치다.

복수시장 도입에 따라 투자자 선택권도 확대됐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 참여 중인 국내 증권사는 32개사로, 한국거래소 참여 증권사의 89% 수준에 해당한다. 다수 증권사가 참여하면서 최선주문집행 기준에 따른 주문 접근성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투자자 구성 역시 점차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출범 초기 개인투자자 비중이 98%를 넘었으나, 올해 2월 기준 개인 비중은 84.5%로 낮아졌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시장 전체 유동성 확대 효과도 확인

됐다. 올해 1~2월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5000억원으로, 출범 초기였던 지난해 2분기 대비 약 2.8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65조3000억원으로 증가해,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단순한 거래 분산이 아니라 자본시장 외연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올해 ETF,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으로 거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단순히 주식 거래를 나누는 구조를 넘어 새로운 상품과 거래 방식을 흡수해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ETF와 조각투자 모두 올해 10월~11월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ETF는 기존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15%룰’이 적용되기에 이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허정윤 기자 zelkova@

차세대 투자 플랫폼 NH투자증권 ‘나무X’ 공개

NH투자증권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크로스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투자 서비스 시범 프로젝트인 ‘나무X’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나무X’는 기존 증권 앱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모바일, 태블릿, PC 등 서로 다른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하나의 투자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나무X’를 통해 앞으로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와 특성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유연하게 대응된 최적화된 투자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던 종목과 화면을 여러 기기를 오가며 정보 탐색부터 투자 판단, 실행의 과정까지 한 흐름 안에서 이어갈 수 있다. /허정윤 기자

허정윤 기자